



일체가 공했으니 뇌라 뇌라! 쉬어라!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서산 대사와 사명 대사 때문에 불교라면 아주 자지러져서 아주 불교국으로 뻗지 않습니까. 생활을 불교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에서 따간 것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장삼을 하오리로 만들었고,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습입니까? 처음에는 행전을 당코바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각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발우공양을 공기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글도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정신을 잃지 않고 혼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이 항을 쫓으려고 자기가 쫓아 놓은 것을 빼 버리면 그냥 뭐 야단이 나고, 뭘 따다 놓고 초 켜 놓고 이래야만이 정성들이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항을 켜 놓고 초를 켜 놓았다 하더라도 그 초 한 자루에 수천수만이 밝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남이 쫓아 놓은 거, 내가 쫓아 놓은 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침착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이 지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등이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뒷면에 영원한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인등을 켜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을 것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일기도 드리고 난 뒤에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대중 웃음) 하하하... 백일기도 드릴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백일기도 드릴 때만 자기가 먹고 모두 움직여라나요? 백일기도 드

데 종교 믿는 것마저도 그렇게 편안치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무슨 석달 열흘 기도를 드려라, 인등을 켜라, 뭘 해라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내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이 붙는 거지 내 생각이 시간과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공했는데 내게 팔자 운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유전성 붙을 자리가 어딴고 우환 붙을 자리가 어딴고 날짜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는 게 어딴느냐. 집을 짓는데 구렁신이 내려서 집을 못 짓는다 하는 게 어딴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왜 이렇게 폐기 있게 못 나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자라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탈판 썼어 어떻게 인간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라고 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도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먹어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는 데에 잠, 배고픈 일이 너무도 많고 예처로운 일이 너무도 많고, 쓰러질 일이 너무도 많고 터무니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여러분 사시는 데에 천차만별로 닦치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더불어 얘기를 못하는 비밀도 많습니다. 오히려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도 정말, 자식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고 부모한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참주인이 없다면 어떤 것도 커버해 나갈 수 없고 몸 안에서 병이 들어도 커버해



그림 · 최주현

“
마음의 인등을 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밝을 것이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

리고 난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불이 꺼져도 괜찮습니까?

이 세상 진리는 항상 밝고 항상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돌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혹성, 이 별성이 모두 살아나가고 운동하는 데서 바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그러면 아까 자석에 모든 것이 끌려와 붙는다고 얘기했듯이, 그 불바퀴는 크니까 다 붙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바로 불바퀴가 그것을, 우리가 전력을 빼서 쓰듯이 그렇게 빼서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거죠. 멀하고 생산되고 멀하고 생산되고 이러죠. 이게 바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작용이죠.

이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은 안 하고 모두 남한테 기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속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서 모든 일을, 일체 만법을 다 들고 내고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자기 집은 주인도 없이 비워 놓고 항상 남한테다가 기대면서 살고 있죠. 물질에 기대고 이름에 기대고, 그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인가요? '요기다 놓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거나 않을까?' 아이구, 요기다 놓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땀으로 뭉쳐진 종이딱 몇 개 가지곤 버려면서, 여기 안 놓으면 안 되니까 옮겨 붙여서 놓고 요기 놓고 저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통스럽죠. 우리 인간이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뛰어나는 공부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달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 즉 속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자기의 더불어 한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몸, 한마음, 한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니까 거기서 생각할 때에 '아 참, 들어 아니라는데...' 하고 그걸 알게 되면 죽어 가던 세포도 자꾸자꾸 살아나게끔 바로 작용을 하죠.

여러분! 어떠한 병이라도 지금 병원에서 35%는 고칠 수 있어도 그 외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심으로 믿고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뭐든지 거기가 말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그게 바로 사자가 주인의 심부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말기고 부지런히 움직여주 주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이구, 그게 뭐 나발 같은 소리야! 그까짓 것, 나는 광대한 부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그냥 봐 줄 텐데, 뭐.' 요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믿고 다 맡겨야 하고 그 다음에, 맡겨서 밝게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들어 아닌 공부할 하기 위해서 또 맡겨야 합니다. '나는 건강했다'고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들어 아닌 도리 공부하는 글렀죠. 그리고 미해죠. 세 번째는 들어 아닌 걸 알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네 자식 내 자식이 들어 아니다'는 그 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

듯이 개구리가 도와 달라고 그랬을 때는 개구리가 되어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병신이 달래든 또는 못생긴 사람이 달래든 잘생긴 사람이 달래든, 부자가 달래든 가난한 사람이 달래든, 새가 달래든 곤충이 달래든 짐승이 달래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대로 자기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돼 주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작아져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건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뭐가 됐을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 소 이런 짐승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 사람이 됐을 때 부처라고 할까? 그래서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다'라는 얘깁니다. 했던 말 되었고 했던 말 되었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으니 거기가다가 맡겨서 실험을, 실험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가 맡기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기도를 하라' 뭐 '정성을 들여라' 어렵디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성불이며 열반이며,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앞뒤가 없는 불바퀴를 넘어 참으로 영원한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얻는다면 바로 평등공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칠보활공공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팔수레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도리천, 즉 도리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범이니 평순이니

평순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종합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인이 바로 부처이자 바로 신이죠. 그냥 보통 자기를 불러도 '자신' 이러죠.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있는데 왜 타신을 믿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타신도 들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내 집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올 수 있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법당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상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찰떡을 해서 동그런 그릇에 딱 담으면 그게 그냥 동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그런 딱 한 그릇이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다는 뜻을 아시라고 항상 그림입니다. 내 조상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법당에 올라가시면 내 마음으로 부처든 나든 조상이든 뭐 중생이든 할 것 없이 그냥 전체 통굴러서 지극하게 한다면 일 배를 드려도 삼 배, 삼정례 한 것보다도 더 많아지고 백팔 배를 했다 해도 일 배도 한 사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면 달마 대사께서 양 무제더러 '당신은 공력이 하나도 없다.'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건 뭐 있습니까, 또 몸이 죽어 없어진 뒤에도 바로 그 몸을 해 가지고 쉼새 기 한 짝은 거기 두고 쉼새 한 짝은 주장자 끝에 딱 메고서 가다가,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입에서 뱀뱀 뿜고 또 안 나와요.

▲대중 가운데서: 사진.
▲큰스님: 네, 사진이지요, 사진으로 갔던 사람

이 오는 도중에 딱 달마 대사를 만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다시 해 가지고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터억 보였으니 어떻습니까? 어버이라는 마음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을 아마... 지금도 부처님이 내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이 바로 부처가 살아 계신 것이니까요.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 하는데 열반한 게 아닙니다. 사대가 흩어졌을 뿐이고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하하하...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죠.

그러니까 법당에 가지면 부처님 형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마음에 통굴러서 돌 아니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공부하게 되면 '진짜 부처가 저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서 놓은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한테 돌 아니게 끌려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 방편으로 놓았던 뿔로 놓았던 하얀진짜 부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진짜 부처니까요.

예를 들어서 각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 조사들이 그림을 그려서 놓거나 형상을 조성해 놓은 것을 '이거는 사리가 없다.' 그러고선 갖다 태워 버리지 않나, 인신을 못해서 어린애를 좀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들이면 다기 그릇에다 손을 터억 넣어 가지고 밥을 갖다 툇 툇 툇 툇 손을 터억 넣어 가지고 밥을 갖다 툇 툇 툇 툇 부처님 일이다 쳐 붙여 놓은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애를 달래니 이거 먹고 해 주라.' 그러고선 터억